

2022

12

ISSN 2733-5860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GUNPO MONTHLY
MAGAZINE VOL. 412



발행 | 2022년 12월
발행인 | 군포시장
발행처 | 군포시청 홍보정보담당관
홈페이지 | www.gunpo.go.kr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f www.facebook.com/gunpocity
b blog.naver.com/o2gunpo
i www.instagram.com/gunpocity
y www.youtube.com/user/gunpocity
k https://pf.kakao.com/_eDSsxb

정기구독 신청(무료)

031-390-0062
duee2@korea.kr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1

Well 군포



06 가치 그린 도시 군포

일자리 고민이세요?
군포시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기쁨 찾아보세요!
우리 시민의 일상에
'봄'이 오길 기다리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를 아시나요?

10 it-多

요즘 직장인들이 내일을 대하는 자세
투잡 Two Job

Section.2

Innovation 군포



12 기업 브이로그

기억과 삶을 담는 흔적의 추억
군포 가족공방 얼모스트핑거팁스

14 좋은 사람

Bravo My life, Bravo My Passion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하는
군포남성합창단

16 새로고침

마음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한걸음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ction.3

Talent 군포



18 라이브 군포

노포에서 찾은 따뜻한 한끼
60년 전통의 군포식당

20 트렌드 산책

미리 가보는 2023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까?

22 군포 헬스케어

연말 파티 일품요리부터
정성가득 가족모임 요리까지
바지락을 이용한 우리 집 홈스토랑

Section.4

High 군포



24 문화 이음

문화 프로그램

26 군포가 좋다

기관 소식 및 취업정보

Section.5

군포 With 뉴스



28 군포 with NEWS

30 군포시의회 NEWS

32 독자세상

34 숨은그림찾기

35 캠페인

겨울에 피는 꽃

시리고 모진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고운 꽃망울을 피워내는 수선화의 꽃말은 모자람, 그리고 자기애라고 해요. 어쩌면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 겨울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연말의 의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타인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수선화 하나씩 심어보자고요...





01 일자리 고민이세요? 군포시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기쁨 찾아보세요!

지난 2010년 개소한 군포시일자리센터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초기상담, 취업훈련지원, 취업알선 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인재를 구하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알선하여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밀한 네트워크로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군포시일자리센터는 군포시 관내 일자리지원기관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구인·구직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는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15명의 전문 상담사가 일자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구인·구직, 알선·상담, 취업훈련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이동취업상담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동행면접 등 섬세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보길 바란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그중 현장밀착지원과 계층별 취업훈련,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채용람회,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이 대표적이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상담사들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구인 정보를 확보하고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구인·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또 매년 기업체와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채용이 이뤄지는 ‘채용박람회’와 구직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높여주는 ‘계층별 취업훈련 프로그램’, 구직활동에 나선 예비 취업자들에게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에서 간접적인 직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과 교육을 병행하는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장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 구인·구직 신청서 접수 및 등록처리(고용노동부 work-net)
- 취업상담, 구인·구직 상호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정보 및 취업컨설팅 제공
- 현장밀착지원 「동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운영
-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대·소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 여성,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계층별 취업훈련」 추진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
- 「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상설면접, 동행면접 실시
-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기타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등



일자리센터 및 동주민센터 취업컨설팅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구인·구직 대상 범위 관내 거주자 /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한
군포시 및 군포시 인근 소재 사업장

구인·구직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구인·구직신청서 기재사항
구직자	신분증, 구직신청서(비치)	희망직종, 학력, 주요경력, 희망급여 등
구인업체	사업자등록증, 구인신청서(비치)	채용직종, 채용자격, 모집인원, 급여수준 등



동 주민센터 취업상담 연락처

동	전화번호	동	전화번호
군포고용복지센터(군포1동)	031-389-4972	군포2동	031-390-4070
산본1동	301-390-4071	산본2동	031-390-4072
금정동	031-390-4073	재궁동	031-390-4074
오금동	031-390-4075	수리동	031-390-4076
궁내동	031-390-4077	광정동	031-390-4078
대야동	031-390-4079	송부동	031-390-3695



군포시일자리센터

📍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1층 (금정동, 군포시청)

☎ 031-390-0347, 0227, 0613, 0614

@ <https://gyeonggi.work.go.kr/gunpo/main.do>

우리 시민의 일상에 ‘봄’이 오길 기다리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를 아시나요?

02

군포시는 시민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복지사각지대의 집중 발굴부터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중 ‘무한돌봄센터’는 우리 주변에 복지욕구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플랜을 설계·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공헌하고 있다.

writer. 편집실



시민과 함께 하는 보다 따뜻한 도시 군포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플랜’을 설계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복지지원센터다.

주요 활동으로는 실직, 질병, 부상, 재난재해, 생계유지 위협 등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상황과 마주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의 지원과 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맞춤

형 복지를 제공한다.

무한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로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Q&A로 보는 무한돌봄센터

Q.1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 내의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2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 생계 지원(생계유지 비용 또는 현물 연계), 의료 지원(의료 서비스, 간병지원), 정서 지원(안부전화, 1:1 가정결연), 전문 지원(변호사, 의사 등 상담연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지원(수강료, 교재비 등), 문화지원, 취업연계 등이 있습니다.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라면 누구나 전문상담가를 통해 원하는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습니다.



Q.3 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 주 소득자의 사망,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Q.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첫 번째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에 전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에 어려운 대상자를 알고 있는 가족, 친척 이웃 주민 등이 주민센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로 전화, 방문해주 시면 됩니다.

무한돌봄센터

기관명	연락처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031-390-0610
남부 네트워크팀 (군포시 노인복지관)	031-399-2270
북부 네트워크팀 (매화종합복지관)	031-395-3679

요즘 직장인들이 내일을 대하는 자세 투잡 Two Job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 '투잡(Two Job)' 또는 'N잡러'라는 말은 더이상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 그만큼 본업 외 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는 얘기로, 투잡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투잡의 세계로 안내한다.

writer. 편집실



주 52시간제에 시행으로 투잡족 늘어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존재하는 요즘, 낮에는 직장인으로 또 밤에는 사장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을 우리는 '투잡러'라고 부른다. 투잡을 영위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유희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이들과,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등으로 그 사유도 다양하다.

한 금융기관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2022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세~5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2%가 부업을 한다고 답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여유·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19.4%)와 생활비 부족(14.1%)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2%는 배달, 소셜 크리에이터, 블로거 등 최근 들어 생겨난 신생 부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서 작성이나 번역, 대리운전, 포장, 택배 등 전통적인 부업을 하는 응답자는 3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능 판매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시대상 반영된 다양한 부업의 세계

부업에 뛰어난 직장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수익 창구를 만든다. 가장 진입이 쉬운 업종은 요즘 인기 있는 배달 라이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화물 전문 운송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7년 4월 10만 287명에서 2021년 4월 19만 5,032명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관련 플랫폼은 음식 배달 뿐 아니라 퀵서비스, 반려동물, 택시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선택권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는 등의 투잡도 인기가 있다. 플랫폼 '탈잉'은 영어, 그림, 데이터 개발 등 강의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이 수업을 신청 후 이용한 뒤 수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플랫폼으로는 '크몽'과 '숨고' 등이 있으며, 각종 서비스 전문가를 매칭해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SNS 구독자 수를 모아 광고 수익을 버는 방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등도 매력적인 부업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한류 인기로 힘입은 역직구 셀러도 증가

최근에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상품을 역직구 판매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수입도 적지 않아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품을 동남아 등지로 판매하는 직장인 셀러(판매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 과자 및 스낵류가 다수로, 한국문화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이 한국의 맛을 즐기기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액은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앞서 예로 들었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K-푸드의 하루평균 주문 건수는 2019년부터 연평균 170% 성장 중이다. 이를 판매하는 셀러와 샵도 300% 이상 증가했다.

K팝 앨범과 굿즈를 판매하는 한 유통사는 현재 4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초기만해도 투잡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 셀러 중 한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2020년 동남아 시장에서 전년 대비 11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브라질 샵에 입점해 월평균 2배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유행하는 투잡 BEST 5

첫째, 생계형

택배배달, 대리운전 시장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며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플러스와 배민커넥터가 있으며, 플랫폼에 기사로 등록해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지원해 배송 캠프에서 상품을 수령 후 배달한다. 자신의 차로 배달해야 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재능공유형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공유할 수 있는 투잡도 인기로 탈잉, 숨고, 크몽 등 재능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이 유형의 경우 수월하게 투잡에 입문할 수 있으며,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간단한 디자인 작업부터 번역, 패션 스타일링 등 분야도 다양하다.



셋째, 여가형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유튜브로도 투잡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브이로그(Vlog) 등



의 영상을 제작해 구독자들과 소통한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투잡도 인기다.

넷째,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형

이 유형은 점점 다가오는 정년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선택지로, 퇴직 이후는 물론 노후까지 지속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유형으로는 저녁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자격증 취득 후 주말을 이용해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 등이 있다.



다섯째, 공유형

공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신의 집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또는 촬영장소로 대여해준 뒤 비용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집을 자주 비우는 직장인에게 해당되며,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의류나 소품 등을 대여해주고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기억과 삶을 담은 흔적의 추억

군포 가죽공방 얼모스트핑거팁스

군포 당산로 언덕길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낮은 구옥과 상가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수줍은 듯 함께 어우러져 있는 ‘얼모스트핑거팁스’는 누구나 한 번쯤 들려 자신만의 추억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가죽공방이다.

writer · photographer. 노유찬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요즘 남자들에게 “로망이 무엇이나?” 물으면, 그중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 “목공방이나 가죽공방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대답이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자연에서 나는 소재로 나만의 추억이 담긴 공간과 작품을 만들어냄에 따른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얼모스트핑거팁스의 공방지기 정희성 씨(33)는 수많은 이들의 로망을 일찌감치 실현한 젊은 청년으로, 약 8개월 전 지금의 자리에 자신의 꿈을 키워줄 공방을 차렸다. 공방 얼모스트핑거팁스는 내외부 모두 구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빈티지한 멋이 매력으로, 그리 큰 공간은 아니지만 아담한 풍경이 친근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희성 씨의 안내로 공방 안을 여유롭게 둘러보았다. 그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가방과 같은 제법 큰 작품들도 근사한 멋을 자랑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부터 취미반까지 자신에 맞는 수업도 진행

얼모스트핑거팁스는 정희성 씨의 개인 공방이자 다양한 형태의 원데이 클래스부터 기초반과 취미반 등 보다 전문적인 클래스까지 운영 중에 있다. 우선 가장 기본은 가죽공예에 대한 맛 정도를 경험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데, 간단한 카드지갑부터 시계줄 정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원데이 클래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4~5시간으로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클래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연세가 지긋한 노신사들도 단골이라고.

만약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원할 경우에는 기초반과 취미반 중 선택해 수강하면 되는데, 이 경우 원데이 클래스와 비교해 보다 전문적인 경험이 가능하다. 한편 얼모스트핑거팁스에서는 ‘베라펠레(vera Pella)협회’에서 인증한 베지터를 가죽만을 사용해 작품을 만드는데, 베라펠레협회에서는 가죽을

㉞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길 수밖에 없는 수많은 흔적들,
그 흔적이 삶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쌓여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족과 같이 말이죠...

㉟

얻기 위해 도살을 하지 않는 철칙부터 재활용이 가능할 것,
유해물질을 미포함할 것 등 환경을 염두에 둔 5가지의 원
칙을 기준으로 가족을 생산한다. 가족의 질 또한 세계적으
로 정평이 나있고 인정 받는 제품이다.

이에 정희성 씨는 “환경과 가족의 질 모두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다 좋은 품질의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
리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예를 위해
이용되지만 베라펠레 비건 가족은 여러모로 긍정적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전한다.

낮설, 그 자체를 공유하는 얼모스트핑거팁스

가족공방 얼모스트핑거팁스는 나름의 운영철학이 있다.
이는 공방지기 정희성 씨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
로 ‘사람과 공간 모두 낮설면 낯선 대로 그 자체를 즐기고
공유하는 것’이다.

사실 정희성 씨는 공방을 운영하기 전 광고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던 디자이너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꽤나 고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직장생
활 중 무너지는지를요” 그렇게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찾던 그가 선택했던 게 가족공예
였고, 5년여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오늘의 공방을 열게 되
었다.

이런 그에게 “가족의 매력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이에
그는 “우리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듯 가족 또한 수많은 추
억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 난 작은 상
처가 언제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시
의 추억을 되새김하죠” 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충분
히 공감이 간다. 내가 사용하는 10년은 훌쩍 넘은 가족 가

방이 그런 경우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여러 출장길을 함
께 했던 녀석과의 추억들이 문득 떠오른다. 겨울이고 연말
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 얼모스트핑거팁스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원작



얼모스트핑거팁스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19번길 23 1층

☎ 0507-1322-6756

@ Instagram www.instagram.com/almost_fingertips

Bravo My life, Bravo My Passion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하는 군포남성합창단

군포 최초로 탄생한 아마추어 남성합창단 '군포남성합창단'의 열정 넘치는 연습 현장을 찾았다. 창밖은 깊은 가을 저녁 어둠이 깔려있고 쌀쌀한 바람에 나뭇잎들이 쉽게 떨어지는 풍경이지만 연습실은 지휘자의 열정적인 손동작과 경쾌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아름답고 웅장한 화음을 연출하는 단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이미 가득 차 있다.

writer. 편집실 photographer. 노유찬



아름다운 열정 멋진 인생 군포남성합창단

음악은 세계 공통의 언어이며 사람의 목소리아말로 최고의 악기라는 말이 있더라. 남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목소리로 뽐어내는 화음은 어떤 음악보다도 묵직하고 진하게 가슴 깊이 파고드는 감동이 전해진다. 마침 단원들이 부른 '향수'라는 곡이 더욱 창밖 풍경과 어우러져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군포남성합창단은 2015년 5월경 합창음악에 관심있는 남성들이 모여 창단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에 모인 약 40여 명의 단원들은 음악을 전공한 적 없는 순수 아마추어들로만 구성되었다.

직업, 연령, 종교, 이념 상관없이 오직 신사의 덕목만 갖추면

환영이고 단원이 될 수 있다. 음표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인 단원들의 음악 실력 향상을 돕고 있는 지휘자 우재기 씨는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실력과 성악가이며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장미정 씨가 반주를 맡고 있다.

군포남성합창단은 창단 초기부터 수많은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연습을 중단하기 전에 가진 매년의 정기연주회에는 큰 공연장 객석이 거의 찰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경기음악제 및 환우를 위한 병원음악회, 군포시 축제와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 나눔 활동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합창의 매력은 하모니에서 나옵니다. 합창은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보다 조화와 화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사회에서 합창음악을 통해 단원들 간에도 또 지역사회에도 끈끈한 문화적 유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합창의 큰 장점이며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장 장석기 씨의 말이다.

군포남성합창단이 연습하고 연주하는 곡은 클래식, 국내외 가곡, 민요, 가요 등 다양하다. 또 발성훈련, 음악이론 공부도 수시로 연습시간 중에 이루어진다. 단원 화합과 친목을 위해 매월 1회 갖는 호프데이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mini interview



장석기
단장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전면적 해제로 우리 합창단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합창단으로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라며, 현재 신입 단원과 기존의 단원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석
기획팀장

건전한 군포 남성문화의 상징 군포남성 합창단의 문은 단원 100명이 될 때까지는 오디션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 오셔서 멋진 인생 2막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요 인원

- 대 표 강희진(전 군포예총회장)
- 단 장 장석기(작곡가, 전 군포예총회장)
- 고 문 김광철(세한대 음악학부 교수)
- 지휘자 우재기(성악가, 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반주자 장미정(피아니스트, 작곡가)

향후 계획

- 2023년 제5회 정기연주회 개최
- 경기음악제, 환우를 위한 병원 음악회, 군포축제 및 각종 음악회 참가
- 군포남성합창단 100인 특별음악회 개최

연습 및 입단문의

- 연습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 장소 : 군포생활문화센터 2층 어쿠스틱연습실 (경기 군포시 수리산로 112)
- 입단문의 : 서진석 기획팀장 010-5211-4711
- 입단자격 : 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군포남성



마음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한걸음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때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지 싫어하며 꿍꿍 싸매둔 채 살아간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 살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내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다.



20여 년 한결같은 시민의 마음 쉼터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2년 개관 이래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정신건강 파수꾼 역할을 도맡고 있다. 이러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 갓 청년이 된 셈이다.

이러한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자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시민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다른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과 자살 위기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군포HUB, 군포도시공사, KTis, 군포부곡휴먼시아 2단지 등 다방면의 관내 기관과 협약을 맺어 정신질환 예방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개입을 위한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탄력적인 치료적 개입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66

정신질환과 자살로 인한 문제는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살시도자 외에도 자살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살예방사업을 보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99

부설 군포시자살예방센터의 역할도 주목

한편 2020년 7월 개소한 센터 내 부설 '군포시자살예방센터'도 주목할만한 시설이다. 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자신들의 역할을 확장 중이다.

이밖에도 정신질환과 자살로 인한 문제는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살시도자 외에도 자살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살예방사업을 보완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신체적 건강에 치중한 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등한시한 채 살아온 게 현실이다. 이에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2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들의 노력과 역할로 우리 군포시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 📞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1-1771 / (부설)군포시자살예방센터 031-360-1779

@ <https://www.gpcmh.or.kr/>

노포에서 찾은 따뜻한 한끼 60년 전통의 군포식당

요즘 같은 겨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 마음까지 따뜻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생각나는 군포의 대표적인 노포(老鋪) '군포식당'은 60년을 이어온 군포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군포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려봤을 시민들의 안식처다.

writer · photographer. 노유찬



60년을 이어온 변함없는 설렁탕 맛

'군포식당'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시절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주변의 변화에도 여전히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물론 인테리어는 요즘에 맞춰 변화를 꾀했지만, 그 맛만큼은 60년 전의 맛을 고수 중이다. 요즘은 어릴 적 맛본 군포식당의 설렁탕 맛을 잊지 못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뒤 자신의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군포식당이 맛집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또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내놓은 맛에 길든 우리에게, 오래전 그 맛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기복 없는 맛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포의 그 맛 그대로라는 얘기가.

특히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내공은 요즘 말로 하면 감성까지 충만하게 만들기 충분한데, 서양건축물 위에 놓여진 한옥의 구조물로 된 간판이 그렇다. 이 간판은 꾸밈이 없다. 어찌



면 자신들의 내놓는 한 그릇의 설렁탕에 대한 자부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도시에서도 찾는 군포의 명소

실내로 들어서면 외관과 달리 현대적인 모습이지만 이질감은 없다. 오히려 쾌적한 실내 인테리어에 조금은 편안하기까지 하다. 군포식당은 1959년 문을 연 이래 60년 이상을 군포의 맛집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군포식당의 대표 메뉴인 설렁탕은 ‘보통’과 ‘특’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으며, 고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자리 하나를 차지한 후 주문하고 5분 여가 지나자 기다렸던 설렁탕이 그 자태를 드러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깍두기는 친근한 맛으로 설렁탕과 궁합이 매우 좋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살짝 꼬릿한 냄새와 달리 그 맛은 꽤나 깊이가 있었고, 어디선가 맛보았었던 듯 익숙함을 선사한다.

이러한 맛 때문인지 최근에는 군포 시민은 물론 주변 도시에서 찾는 이들도 많다. 한 손님은 용인 수지에서 포장을 위해 찾았다고 귀띔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아버님을 위해 방문했

지만 자신도 그 맛에 반해 15년째 단골이라고. 천천히 한 수저씩 음미해보니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는 맛이다. 특히 찬으로 나온 깍두기 하나를 척 올려 맛을 보니 아마도 단골이 될 듯하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이로 인해 마음마저 차갑게 변했을지도 모른다. 이럴 때 군포식당에서 온기 가득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보는 건 어떨지 가만히 생각해본다. VOICCYC



미리 가보는 2023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까?

2023 핵심 키워드는 뭐는

토끼처럼 위기도 현명하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의 키워드로 '뛰는 토끼(RABBIT JUMP)'가 제시됐다. 여기에는 2023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비해 토끼의 지혜와 총명함이 발휘됐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이 2023년 새해의 키워드로 '불경기', '위기', '변화'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격변의 시대가 예측되기도 한다.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의 트렌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새로운 2023에는 어떤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writer. 강다현 자유기고가

트렌드 키워드 ①

평균실종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무난함과 적당한 애매함으로 도태되니, 평균을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트렌드 키워드 ②

오피스 빅뱅 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 Office Big Bang

일의 풍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 이들은 회사보다 개인의 삶, 급여보다는 복지, 자발적 사직, 프리랜서 열풍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회사는 새로운 조직철학을 만들고 개인은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며 상호 신뢰와 소통력을 키울 것을 조언한다. 한편 빅뱅의 시대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렌드 키워드 ③

체리슈머 Born Picky, Cherry-sumers

한정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이르는 단어 '체리슈머'는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구매(조각)하거나,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공동구매 등 실속적인 소비를 통해 절약을 꾀한다.



트렌드 키워드 ④

인덱스 관계 Buddies with a Purpose : Index Relationships

인덱스 관계는 ‘만들기’, ‘분류하기’, ‘관리하기’의 3단계로 나뉜다. 만들기는 과거처럼 학연·지연 같은 인연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완전히 우연에 기대는 ‘랜덤’ 방식으로 형성된다. 둘째, 이렇게 관계를 만들고 나면 그 친분을 분류한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한 만큼 그 관계의 친소도 매우 복잡하다. 다시 말해 관계의 중요도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면서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중요해졌다. 마지막은 관계를 관리하는 단계다. 분류된 관계에 붙여진 인덱스를 떼다 붙였다 하기를 반복하며 관리해나간다.

트렌드 키워드 ⑤

뉴디맨드 전략 Irresistible! New Demand Strategy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소비자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이나 상품에 지갑을 연다. 이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 ‘뉴디맨드 전략’이다. 뉴디맨드 전략은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뉴디맨드 전략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 키워드 ⑥

디깅 모멘텀 Thorough Enjoyment : Digging Momentum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한다. 디깅 모멘텀은 단순히 취미 생활에 대한 트렌드가 아닌,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자아’를 찾으려는 열정 가득한 노력이자,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행복 전환점을 찾으려는 삶의 매진이다.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취미·키덜트(kid+adult)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나아가 디깅러들의 ‘입소문힘(viral power)’이 강해지면서 일반 산업에서도 이들의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트렌드 키워드 ⑦

알파의 시대가 온다 Jumbly Alpha Generation

‘알파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XYZ까지 알파벳을 소진시키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알파는 밀레니얼 세대를 부모로 둔 만 0~10살의 아이들을 뜻한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친구와 놀이 등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세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세대인 ‘알파세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알파세대는 자기중심성이 강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까닭에 모두가 스스로를 셀러브리티(celebrity)이자 아키텍트(architect)라고 여긴다.

트렌드 키워드 ⑧

선제적 대응기술 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

살면서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 전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기술’이다.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트렌드 키워드 ⑨

공간력 Magic of Real Spaces

잘 꾸며진 공간은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로 붐비기 마련이다. 실제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실재를 이길 수는 없다.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기지만 매력적인 콘셉트와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트렌드 키워드 ⑩

네버랜드 신드롬 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

어른 되기를 늦추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른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요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연말 파티 일품요리부터
정성가득 가족모임 요리까지
**바지락을 이용한
우리 집 홈스토랑**

홈스토랑 하나!

밥 반찬과 술안주로도 그만 ‘블랙빈 소스 바지락 볶음’

바지락은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조개로 사계절 내내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겨울철이 제철이다.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이 일품인 바지락으로 연말 파티 요리를 완성해 보자. 요리로 먹어도, 밥 반찬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고, 안주로도 제격인 블랙빈 소스 바지락 볶음!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다.

재료

바지락(600g), 청양고추 1개, 대파 1뿌리, 양파 1/2개,
다진 마늘 1(큰술), 블랙빈 소스 1(큰술), 소금 약간, 레몬 1/4개,
두반장(기호에 따라), 설탕(기호에 따라), 고수(기호에 따라)

건강 레시피

- ① 해감한 바지락은 깨끗하게 씻어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② 다진 마늘, 대파, 다진 양파, 청양고추를 썰다.
- ③ 볶음팬에 기름을 두르고 ②를 넣어 볶는다.
- ④ 바지락을 넣고 볶다 블랙빈 소스를 넣어 볶는다.
- ⑤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하고 기호에 따라 설탕과 두반장을 약간 넣는다.
- ⑥ 접시에 담아 레몬을 곁들이고, 기호에 따라 고수를 곁들여 올린다.

바지락은 국이나 찌개에 사용되는 약방의 감초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며, 저열량 식품으로써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겨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함을 더한 바지락 요리 두 가지를 소개한다.

writer. 편집실



Cookin Tip.

친근하지만 건강한 식재료 바지락

바지락은 양식이 되는 조개로 일년 열두달 구할 수 있는 일반 식품이다. 조개 중 가장 시원한 맛을 지니고 있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고 철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 특히 한국인의 소울 푸드 된장찌개에 넣으면 바지락에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 주어 좋은 음식 궁합을 이룬다.



홈스토랑 돌!

찬바람 불 때 가족과 함께 즐기는 대표 면 요리 '바지락 칼국수'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족해지는 순간이 있을까. 칼국수는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따뜻하게 배를 채울 수 있으면서도 가족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음식이다. 멸치육수로 맛을 내 깔끔한 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로 따뜻한 연말 가족 식탁을 준비해도 좋을 것이다.

재료

바지락(500g), 칼국수면(600g), 감자 1개, 애호박 1/3개,
대파 1뿌리, 당근 1/4개, 멸치다시마새우 육수 800ml,
국간장 1.5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건강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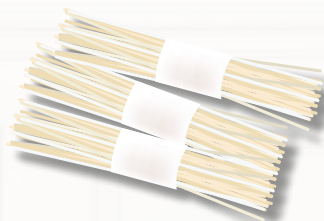
- ① 멸치, 다시, 새우로 육수를 내 둔다.
- ② 감자, 애호박, 당근을 채 썬다.
- ③ 육수에 채소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바지락을 넣는다.
- ④ 칼국수면을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
- ⑤ 국간장과 후추를 넣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한다.
- ⑥ 대파를 썰어 넣어 담아 낸다.



Cookin Tip.

건면과 생면

생면은 반죽 후 면발 상태로 만들어 유통기한이 짧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칼국수면은 생면으로 된 제품이 많다. 찰진 상태의 생면을 인공적인 바람이나 자연 바람에 말리면 건면이 된다. 건면은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생면보다는 길다. 수분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끓이는 시간도 차이가 있다. 생면은 씹는 식감이 더 좋기 때문에 쫄깃한 맛을 중시하는 칼국수면으로 제격이다.



CULTURE 12 CALENDER

Sun

Mon

Tue



● 리사이클아트랩 리워드 증정

- 운영기간 10. 17.(월) ~ 12. 30.(수)
- 운영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405호 리사이클아트랩
- 대 상 군포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군포문화재단→군포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031-390-3063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

대면수업 및 비대면
온라인수업(Zoom 활용)을 합니다

4

5

6



● 군포시평생학습원 84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모집

- 접수기간 2022. 12. 6.(화) ~ 12. 9.(금)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군포문화재단→군포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참조)
- 교육기간 2022. 12. 19. ~ 2023. 2. 11. (총7~8주)
- 추가접수 12. 12.(월) ~ 정원 마감 시 까지
- 문 의 031-390-3050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

11

12

13



1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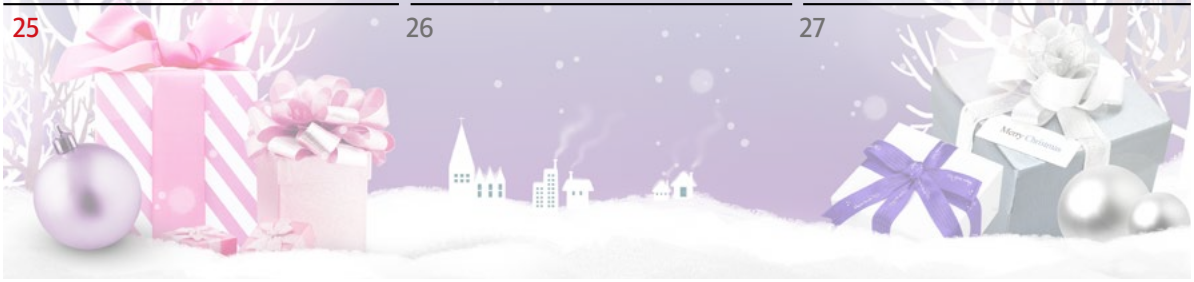
20



25

26

27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원 ●수리산상상마을 ●생활문화센터



Wed		Thu		Fri		Sat	
1		2		3		4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입니다 합창음악이 가진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2 송년음악회 - 일 시 12. 3.(토) 19: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20,000원 - 문 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7		8		9		10	
따뜻한 위로의 말과 감성을 품은 감성뮤지컬				●뮤지컬 <인서트 코인> - 일 시 12. 9.(금) 19:00 ~ 12. 10.(일) 14:00, 19: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30,000원 - 문 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14		15		16		17	
●수리산상상마을 14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모집 - 접수기간 2022. 12. 14(수) ~ 2023. 1. 7(금)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2022. 12. 14(수) ~ 2023. 1. 7(금) - 방문 접수 : 2022. 12. 15(목) ~ 정원 마감 시까지 - 교육기간 2023. 1. 2. ~ 4. 29. (총 16주) - 문 의 031-390-3080 (군포문화재단 수리산상상마을)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일 시 12. 16.(금) 19:30 ~ 12. 17.(토) 15:00, 19: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문 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21		22		23		24	
대중성이 뛰어난 아티스트 디에이드와 정준일을 무대에서 만나본다.				●<Rock & Concert> Vol.42 디에이드 & Vol.43 정준일 - 일 시 12. 23.(금) ~ 12. 24.(토) 19:3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50,000원 - 문 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2022 이은미 전국투어 콘서트 <ACOUSTIC> - 일 시 12. 24.(토) 18:00 <1일 1회>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료 R석 121,000원 / S석 99,000원 A석 77,000원 - 문 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28		29		30		31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마지막 날, 소중하게 마무리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다.				●2022 군포문화재단 제야음악회 - 일 시 12. 31.(토) 20:00 - 장 소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 - 입장료 일반석(전석) 20,000원 - 문 의 031-390-3500~1 (군포문화재단 군포문화예술회관)	

기관소식



수리산상상마을 14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모집

접수기간 2022. 12. 14(수) ~ 2023. 1. 7(금)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2022. 12. 14(수) ~ 2023. 1. 7(금)
 방문접수 2022. 12. 15(목) ~ 정원 마감 시까지
교육기간 2023. 1. 2. ~ 2023. 4. 29. (총 16주)
교육방법 대면수업 및 비대면 온라인수업(Zoom 활용)
문의 군포문화재단 수리산상상마을 ☎ 031-390-3080



2023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접수기간 2022. 12. 2(금) 09:00 ~ 12. 8(목) 18:00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으로서 사무업무 등이 가능한 자
 ※ 접수제외 :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중도포기자 포함), 대학원생 방송통신·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원 재학생
선발인원 54명 (특별전형 10명, 일반전형 44명)
 ※ 특별전형 대상자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 급여 취득을 통한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등은 참가자가 확인 판단하여 신청)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시민참여』→『인터넷접수』
선발방법 전산추첨 (2022. 12. 9(금) 10:30)
 ※ 전산추첨 참관 : 12. 8(목) 17시까지 행정지원과(☎ 390-0344)로 신청 (선착순 3명으로 아르바이트 신청자에 한함)
결과발표 2022. 12. 19(월) 16:00 (새소식란, 개별안내無)
문의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 ☎ 031-390-0344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변경 안내

장소 군포시보건소 부지 내 (군포시 군포로 221)
운영시간 평일 오전 : 09:00 ~ 12:00,
 평일 오후 : 14:00 ~ 17:00
 토요일 : 09:00 ~ 12:00
 ※ 운영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12~14시: 환기 및 소독시간
 ※ 10. 16(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문의 군포시보건소 ☎ 031-389-4901, 4902

검사대상

PCR 우선검사 대상자	
대 상	확인방법
만 60세 이상 (1962년~)	신분증
2. 신속항원 양성자	검사키트
3.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서
4. 밀접접촉자 (확진자 가족)	검사안내문자 또는 확인서
5. 해외입국자 (입국 3일 이내)	입국서류, 여권, 항공권
6.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검사, 입원 예정 환자 및 상주 보호자 1인	재직증명서, 근무(실습) 확인서, 입원 예정 확인서 등
7. 입영 장정(입영 전 3일 이내)	입영통지서
8.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확인된 자)	기관장 발급 확인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 기간
 2022. 11. 21.(월) ~ 12. 18.(목)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cobk
전화예약 ☎ 1399
 거주 시군 콜센터 ☎ 031-392-3000
 ※ 예약 없이 당일 현장접종 가능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cobk)
 또는 전화예약(1399, 거주 시군 콜센터)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 기간(11.21~12.18)
예약 없이 당일 현장접종 가능

이상반응 등 기타정보는 코로나19 누리집(ncov.kdca.go.kr) 참고



JOB-多

군 포 시 가 추 천 하 는 추 천 일 자 리 정 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천지로지스 물류대행 ㉠ 군포시 변영로 82, 한국복합물류터미널 J동 10층	사무보조 및 정산담당 2명 (운전가능자)	㉠ 주5일 09:00~18:00 ㉡ 월급 2,650,000원~3,300,000원
미라클요양병원 요양병원 ㉠ 군포시 삼성로8번길 4-20(부곡동)	조리원 1명	㉠ 주5일 06:00~18:00 ㉡ 연봉 24,000,000~25,000,000원
(주)흥선 육류 가공 처리업 ㉠ 군포시 산본로 48번(당정동)	물류 입출고관리 1명	㉠ 주5일 08:30~17:30 ㉡ 연봉 31,000,000~35,000,000원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 (3톤 미만)
모스전자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 ㉠ 군포시 당정로 68-1(당정동)	제품 외관 검사직 1명	㉠ 주5일 08:30~17:30 (잔업시 20:30까지) ㉡ 시급 9,160원
디비씨앤에스 자동차손해사정(주) 금융지원 서비스업 ㉠ 군포시 엘에스로 153-8 금정 하이뷰 3층(산본동)	인바운드 고객센터 1명	㉠ 주5일 09:00~18:00 ㉡ 연봉 25,680,000~27,840,000원
꽃가람노인전문요양원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군포시 금산로 6번길12	사회복지사 1명	㉠ 주5일 09:00~18:00 ㉡ 월급 1,910,000~2,000,000원
(주)유진 식품 첨가물 제조업 ㉠ 군포시 고산로 126번길(당정동) 12	생산직 2명 (원단 절단 및 원료 배합)	㉠ 주5일 08:30~17:30 ㉡ 월급 2,100,000~2,300,000원
(주)종이사랑 사무용품 소매 유통 ㉠ 군포시 군포로 609번안길 7(금정동)	복사지 납품 배송기사 1명	㉠ 주5일 08:30~18:00 ㉡ 월급 2,400,000원
(주)신화테크 전자부품, 무역 ㉠ 군포시 공단로 284 한림벤처타운 505	하네스/케이블 생산직 사원 2명	㉠ 주5일 09:00~18:00 ㉡ 시급 9,300원
(주)에프텍 공기압 부품 ㉠ 군포시 산본로 85번길(당정동)	제품 개발 및 설계(오토캐드) 1명	㉠ 주5일 09:00~18:00 ㉡ 연봉 40,000,000원

※ 2022년 11월 15일 기준 자료로 구인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인구직정보는 일자리센터(031-390-02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군포시자원봉사센터, '2022 재난대응 우수 자원봉사센터상' 수상



군포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달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우수 자원봉사센터상'을 수상했다. 군포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당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활발하게 피해복구 활동을 펼친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북 울진, 강원도 산불 △수도권 등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등 지역 내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활동을 우수하게 추진한 30개 자원봉사센터에 주어졌다. 군포시자원봉사센터는 평소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적인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매미나방 알집제거 등 다양하고 긴급한 재난에 적극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2 군포시 '터널차량 연쇄추돌' 안전한국훈련 실시



군포시가 11월 24일(목) 금당터널에서 10개 유관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

행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비롯해 관련부서 공무원, 군포소방서, 군포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단체와 참관인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금당터널 진입 부근 차량 10중 연쇄 추돌사고(유조차 포함)와 산불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초동대처, 인명구조, 현장대응 및 복구수습 활동까지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실재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3 군포시,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채용, 체납관리단 현장 방문율, 체납관리단 체납징수비율,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인원 등 4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를 선정했다. 군포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3,118명을 대

상으로 현장조사(방문·안내)를 진행해 체납액 약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생계형 체납자 10여 가구를 복지부서와 연계해 주거·일자리·생계비 등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지원 등 따뜻한 조세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GUNPO with NEWS

4

군포1동 복지과, 사랑의 김장김치 1천 5백 포기 340가구에 전달



군포1동 복지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김치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34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전달된 김치는 지난달 14일 군포시새마을회에서 후원한 김장김치 8Kg 133박스를 비롯해 21일

군포1동새마을부녀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장김치 130박스, (사)필라멘트복지법인(안산시 상록구 소재)에서 후원한 김장김치 등 각처에서 후원됐다.

특히 군포1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은 21일 군포1동 주민센터 앞마당에 20여 명이 모여 550여 포기를 직접 담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도 참석해 김치를 담그는 등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후원받은 김장김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340여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군포1동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군포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유관기관은 물론 봉사단체 법인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김장 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하고 전달하는 참여형 행사로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5

군포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 진행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달 18일(금)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군포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군포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군포시청과 군포경찰서,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의 민·관·경이 협력하여 군포 시민에게 '부모가 매일 한 걸음 배우며 노력할 때 자라는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슬로건의 의미를 전달했으며 ▲자녀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마련 ▲부모교육 의무화에 관한 실질적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적 정책 강화에 대한 서명 참여를 실시했다.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빈곤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전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아동학대예방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47)나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031-8042-73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의회, 2023년부터 상임위원회 운영

제265회 정례회에서 3개 상임위 위원장 등 선출



군포시의회가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2023년 1월부터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의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제264회 임시회(11. 9. ~ 11. 23.)에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이길호 의장은 “모든 사안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제266회 임시회 회기 개최 전까지 각 상임위 운영 방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방의정 전문가를 초빙해 의원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경기도 내 유사 규모의 시의회 현황을 파악한 후 이미 상임위원회를 운영 중인 이천시의회(의원 9명)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65회 정례회(12. 1. ~ 12. 19.)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출을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 정보는 전면 개편 용역을 시행해 2023년 새롭게 선보일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 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위원회 (정수)	소관 부서	비 고
의회운영 (5명 이내)	의회사무과	행정전문위원
행정복지 (4명)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산업건설 (4명)	시민중심국,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수도복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기술전문위원



군포시의회 누리집 개편, 연내 마무리

이달 말 새 누리집 시범 운영 시작

군포시의회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누리집 개편 작업이 연내 마무리된다. 시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와 더불어 시민의 누리집 이용이 더 편리해지도록 기능 및 디자인을 보완하며, 누리집 방문자들이 의정활동 정보를 더 알기 쉽게 의원 개별 페이지를 신규 구축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길호 의장은 “비대면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의회 누리집 전면 개편을 진

행해 시민의 이용이 더 편리해지도록 바꾸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군포시의회 누리집은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되며, 2023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개편 작업 초기 누리집 도메인을 정부기관 의 지위에 맞게 변경(gunpocouncil.or.kr→gunpocouncil.go.kr)한 바 있다.



군포시의회, 2023년 회기 운영 계획 확정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 개최… 필요시 추가 조정

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가 2023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2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며, 12월까지 4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긴급한 사안을 이유로 군포시의 임시회 소집 요구 등이 있으면 임시회가 추가되거나 회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기타 각 회기의 주요 안건 등 상세 일정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 사전 공지된다.



2023년 군포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

회기별	기간	주요 안건
제266회 임시회	2023. 2. 21. ~ 2. 24.	- 조례 및 기타안건 -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제267회 임시회	2023. 4. 11. ~ 4. 19.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 제1회 추경예산안
제268회 정례회(1차)	2023. 6. 1. ~ 6. 20.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제269회 임시회	2023. 9. 5. ~ 9. 13.	- 조례 및 기타안건 - 제2회 추경예산안
제270회 임시회	2023. 11. 6. ~ 11. 21.	- 조례 및 기타안건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 제3회 추경예산안
제271회 정례회(2차)	2023. 12. 1. ~ 12. 19.	-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사유 발생 시 임시회 추가 또는 회기 일정 조정될 수 있음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 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사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duee2@korea.kr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 지급
: 3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
됩니다.

* 제출기한은 **매월 18일**까지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기고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책이 주는 힐링

정은지(금정동)

결혼한 뒤 군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게 되었다.
남편 회사와 비교적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으로 온 것인데, 이제는
어느덧 제법 익숙하고 정겨운 군포시민이 되었다.

군포는 자연과 책,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에서 아이와
둘이 보내다 보니 슬금슬금 외로움과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때 책이 친구가 되어주었다.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도서관에
없는 책은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로 빨리 받아볼 수 있었다. 책을
빌려서 읽으며 주인공의 삶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 보기도 하고, 생각을
열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 책을 통해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글 속에서 경험하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감을 하기도 한다.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했다. 글을 통해 위로와 간접 경험 그리고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살면서 외로움, 우울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직접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공유하며 나누는 것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내게 힘이 되었던 것은 책과 글이었다. 글로나마 타인의
이야기를 접하고, 내 생각을 적노라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을 울리고 떨림을 전달하는 글은 그 글 속에
진정성이 있어서이리라.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이번 겨울에는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많이
가야겠다. 책이 주는 삶의 풍성함을 내 아이도 알아가기를 바라본다.



겨울 옥탑방의 추억

김상현(대야미동)

얼마 전 밤늦게까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일이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대중교통편은 이미 끊기인지 오래이고, 왕복 세 시간 되는 집에 갔다 다시 출근할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싶어 직장 근처에서 자취 생활하는 후배 사원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3층 건물의 옥탑방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로망도 있고, 사는 것도 비교적 자유분방해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황소바람을 경험해 본 나로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곳이다.

그렇지만 엄동설한에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할 수는 없기에 그렇게 하룻밤 묵기로 했다. 경사가 심한 빼적거리리는 철계단에 창고인지 사람 사는 곳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저분하게 이것 저거 늘어놓은 옥상 풍경까지 내가 살아왔던 옥탑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나름 문풍지를 창틀 틈틈이 잘 막아놓고, 야외 캠핑할 때 쓰는 침낭까지 나름 방한대책도 잘 갖춰놓았다. 모처럼 옥탑방에 누워 창문밖에 펼쳐진 밤하늘을 보니 예전 옥탑방에 살던 추억들이 생각이 나게 되었다. 같이 시험 준비를 했던 친구들을 불러다 삼겹살도 구워먹고, 반지하 사는 친구들은 자신들의 빨래가 안 마른다면 내가 살던 옥탑방에 찾아와 같이 빨래하고 말리던 추억이 생각난다. 큰맘 먹고 산 냉장고가 그 좁은 계단통로에 들어가지 않아 배보다 배꼽이 비싼 사다리차를 부른 기억도 떠오른다.

지금처럼 겨울도 고행이지만 햇볕을 직사로 맞는 여름이야말로 사우나가 따로 없을 정도의 찜통에 밤이면 모기 사단들의 공격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이 인생살이의 소중한 교훈이었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젊은 시절을 개척했던 그런 정신적 자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 옥탑방에 사는 이 후배도 전혀 위축되거나 소심해지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긍정 마인드를 보니 훗날 무슨 일을 해도 크게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숨은그림 & 퀴즈



숨은그림 피자, 캐리어, 연필, 새, 지물쇠, 배드민턴공, 도끼, 지팡이

수수께끼 군포시 ○○○○○○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플랜'을 설계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복지지원센터다. (8페이지 참조)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사진을 촬영해 12월 18일까지

이메일 duee2@korea.kr로 제출해 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개별 공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korea.kr 메일은 공무원 보안메일로 수신을 하여도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 정답 제출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 정답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발표)

김상지(3229) 박은지(5931) 방은주(2714) 서동진(5651) 송순자(6227)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예 ☐ 아니오 ☐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년 보유 후 파기

정답제출 유의사항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표시 필수(휴대전화 번호 잘못 기재 시 당첨 취소)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다음, 한메일은 대용량으로 첨부되므로 이용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시 추첨에서 제외

지난 호 정답

수수께끼 :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숨은그림 : 장화, 나비, 펜, 자동차, 빗자루,

음표, 새, 수화기



내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

최초발견자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이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심정지 시간과 사망에 대한 관계



심폐소생술 교육 상시 운영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00~11:20
매주 금요일 오후 14:00~15:20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00~11:20

장소 |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390-8961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COVER STORY



지난 11월 13일(일) 군포 중심상가 일원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의 환하고 밝은 빛이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